반려동물 장례로 불성 존중을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애견 장묘와 탄소 다이아몬드 논란이 뜨겁다. 어떤 이는 "동물에게 무슨 장례냐", "상업화 아니냐"고 말하지만, 불교의 심층 교학-특히 유식과 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논의는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불교는 인간과 동물을 본질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대승기신론〉이 밝히듯 모든 중생은 여래장을 품고 태어나며, 생멸과 진여가 뒤섞인 법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의례로 정돈하는 일은 과잉된 감정이 아니라, 함께 맺은 인연을 연기의 관점에서 정갈하게 마무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식학은 생명을 제8 아뢰야식의 상속으로 본다. 함께 지낸 기억, 손길, 정서적 교감은 그대로 업연이 되어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다. 따라서 장묘 절차는 흩어진 감정과 업의 흔적을 차분히 수습하는 시간이 된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탄소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유식적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유골 속 탄소가 보석으로 응결되는 과정은 생멸의 흔적이 하나의 표상(表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유식에서 표상은 대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관한 마음의 작용이므로, 탄소 다이아몬드는 집착의 산물이 아니라 인연을 한 점에 응축한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마지막 정중히 돌보기
불성 존중 태도 공덕으로 이어져
연기·자비·회향 삶에 새기게 해

밀교에서 보면 이 상징성은 더욱 선명하다. 육대 중 '지(地)'의 요소가 압축돼 새로운 상으로 드러나는 과정은, 속된 물질이 청정한 형상으로 전환되는 체·상·용의 회통에 가깝다. 사리란 돌덩이가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매개였듯, 다이아몬드 역시 현대적 사리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밀교는 모든 존재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며, 그 성품이 각기 다른 상(相)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중하게 돌보는 일은 그 존재 안에 깃든 불성(佛性)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그러한 마음가짐은 공덕으로 이어진다. 이별의 순간을 성스럽게 다루는 문화는 인간만의 장례를 넘어서 모든 중생을 법계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윤리로 연결된다.

이러한 장묘문화가 집착이 아니라 감사의 회향이 될 때, 말나식의 '내 것'이라는 집착이 풀리고 평등지(平等智)가 열리게 된다. 몸·말·뜻이 함께 작용하는 삼밀(三密)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정성은 곧 자비의 실천이 된다.

결국 반려동물 장묘와 탄소 다이아몬드는 불교의 근본정신과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연기·자비·회향을 삶에 새기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려동물은 그저 '집안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길러 온 작은 스승이다. 그 인연을 정중히 보내는 일은 곧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이다.

모든 생명은 법계의 한 점이다. 반려동물을 성숙하게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을수록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지고, 인연도 청정해질 것이다. 이 시대의 장묘문화가 자비의 문명으로 이어지길 발원해 본다.

오구라 수집품 환수와 남북불교 공조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푸른 뱀 해의 마지막 달이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을사늑약 체결 120년, 광복 80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조약을 맺으면서 문화재협정을 체결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2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40년간 강제병합이라는 아픈 역사를 겪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강소국가로 문화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 배경에는 유산이 있다. 일례로 한국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순위로 종합 10위다. 자연, 문화, 복합 유산을 포함한 세계유산은 22위이지만 기록유산은 4위로 아시아에서 으뜸이다. 중국, 일본, 인도 등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도 우리의 기록유산을 따라오지 못한다. 또한 한류의 바탕이 되는 인류 무형유산도 등재순위 4위이다. 자고로 흥과 끼, 멋과 맛을 아는 민족으로 불리던 우리 문화예술은 유네스코 가입국 206개국(준회원국 12개국 포함) 중 당당히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여전히 문화유산 피해국이다. 약 25만 점이 국외에 있고, 상당수는 불법 반출당했다. 1945년 광복 이후 1만3천여 점을 환수했고 이 중 6건이 국보로 지정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북공조를 통해 환수한 유산 2건이 국보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국보 지정 문화유산 6건은 1965년 일본과의 문화재협정으로 2점, 재일동포 김대현 선생의 기증 1건, 양인기 기상청장의 환수 1점, 그리고 2005년 야스쿠니 신사에서 환수한 북관대첩비(2006년 북으로 돌아가 국보로 지정)와 2006년 도쿄대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실록〉 47책이다. 북관대첩비는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의 것이니 통일되면 돌려주겠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환수를 위해 남북이 공동합의를 했고, 결국 일본은 약탈한 지 100년 만에 반환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조선왕조실록〉의 환수도 남북이 공조했고 2011년 환수해 보물로 지정된 〈조선왕실의궤〉의 환수도 남북공조가 위력을 발휘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순위 10위에도
문화유산 약 25만 점 국외에 반출
국내외 정세 맞게 환수 방안 세워야

주목할 점은 남북공조의 핵심역할을 불교계가 했다는 점이다.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의 환수에는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남측의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불교종단이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결실 배경에는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해빙기를 맞이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은 바 크지만, 불교계는 민족정체성 회복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 선언 이전부터 북측과의 교류를 진행돼 왔다. 환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불교계 공조는 일본 오쿠라 호텔에 있는 석탑 2점과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수집품으로 이어졌다. 당시 조선불교도연맹은 환수를 위한 권한을 필자 등에게 위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측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여러 경로로 활로를 찾고 있다. 평화만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기에 더욱 그렇다. 필자는 최근 새롭게 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를 만나 오구라 수집품의 환수를 위해 남북공조 사례를 말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북측의 오구라 수집품 환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북과 관계가 있는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불교계는 그동안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게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세워야 한다.

社 說

'종교활동 3%'의 경고음

한국리서치의 '2025 종교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18년 첫 조사 이후 종교별 종교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불교(16%)는 개신교(20%)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문제는 종교 활동 빈도다. 종교가 있는 사람의 37%는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불교는 3%에 그쳤다. 개신교 63%, 천주교 34%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치다. 또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43%로 가장 많았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4%였다.

한국리서치는 예배 중심의 개신교·천주교와 달리 불교는 개인 수행의 비중이 높아 '종교 활동'의 개념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이 현 상황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수행 중심의 전통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신행의 공동체성 부재, 종교단체의 책임성 약화, 젊은 세대와의 단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불교의 강점으로 '강요하지 않음'을 꼽는다. 자율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징이 불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호감만으로 전승될 수 없다.

이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사찰이 신행 공동체가 되도록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불교가 다시 '찾아오고 머무는 수행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교계 전체의 근본적 성찰과 실천이 절실하다.

폐사지 발굴조사 활성화 기대한다

폐사지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방치되거나 개발 위협에 놓여 있다.

실제 전국에서 확인되는 폐사지는 5738곳이지만 이중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40여 곳 정도로, 이는 전국 사지의 0.7%에 불과하다.

이처럼 폐사지는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유산이지만 예상외로 국가기관과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폐사지의 전체적인 사격과 매장 유구들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발굴 가능한 시기는 정해져 있고, 발굴이 본격화 되기까지 기초조사 등도 필요해 시간과 인력,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12월 3일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업무협약은 폐사지 발굴조사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물리탐사(GPR) 기술을 폐사지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GPR은 지하로 레이더파를 방출해 지하 구조를 파악하는 비파괴 조사 기법으로 최근 문화유산 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도 "지하물리탐사가 가장 잘 반응하는 매질이 바로 석재로 폐사지 조사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폐사지 발굴에서 새로운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로운 첨단기술이 조사 현장에 적용되는 만큼 폐사지 보존·활용도 함께 활성화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